

이라크전쟁,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국방연구원 이라크전쟁 상황팀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라크군을 총격과 공포 속에 몰아넣어 순식간에 바그다드를 장악하려던 미·영 연합군은 개전 이후 나흘째인 3월 23일부터 예상보다 강한 이라크측의 저항에 부딪혀 진격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4월 3일 현재, 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 외곽 6km 지점까지 진격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터키가 자국 영토를 통한 보급수송을 허락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쿠웨이트로부터 길게 이어진 병참선의 보강에 들어간 연합군은 미 본토에서 출발한 제4사단 병력의 작전 투입을 기점으로 여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강도의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전 15일째를 맞이하는 이라크전쟁의 작전양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이라크전쟁 상황팀의 견해를 들어본다. 이 좌담에는 노장갑, 송영선, 김재두, 허성필, 심경욱 박사가 참여하였다.

» 바그다드 일전을 앞두고 양쪽 다 신중을 기하는 듯 한데요. 전쟁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영선 전쟁 이전에 미국이 고려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바늘 공격으로 후세인을 제거한다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둘째, 남쪽에서는 쿠웨이트로부터, 서쪽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부의 모술이나 키르쿠크 같은 전략 지대는 터키 기지를 이용해 공격한다는 가

미국은 처음부터 1~3개월의 전쟁을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규모 민간인 피해는 물론 군인들도 일방적 희생이라는 부담만 없다면 왜 단기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겠는가?

장 정석적인 시나리오도 터키가 기지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차질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처음부터 1~3개월의 전쟁을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었다. 단지 처음의 막강한 전력에 기초한 전쟁수행에 대한 세계 여론의 기대와 미국의 낙관적인 자신감에 다소 차질이 생겼음은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연합군은 4월말까지 바그다드의 전의를 꺾는 작전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예상 밖의 방해 요인들에 의해 작전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표에 의한 전쟁을 수행하려면, 연합군은 교전규칙을 바꾸어야 한다. 실제로 연합군은 교전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다. 예상 하건대 연합군은 4월말 이전까지 바그다드 시가전을 통해 이라크 측의 전의 상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4월말이라는 기한을 제시하는 이유는 5월에 들어서면 40도 이상의 평균 온도 상승, 이에 따른 전염성의 확산 가능성, 수자원의 부족 등으로 연합군 측도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전쟁상황을 종료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는 작전 형태를 취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세계 여론을 의식하여 어떻게 해서든 ‘인간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것이다.

노장갑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규모 민간인 피해는 물론 군인들도 일방적 희생이라는 부담만 없다면 왜 단기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겠는가? 단지 전후 이라크에 있어 단기간 내에 질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민간인들의 살상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영선 그렇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선례를 보더라도 탈레반이 항복할 때까지 반탈레반 세력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라크는 더욱더 복잡한 민족적 양상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의를 꺾으려면 미국이 시간과의 싸움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교전 규칙과 전쟁의 수행 형태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김재두 문제는 현재 병력 규모로 작전해서는 군사적 압승이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폭격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원병력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부담은 더 커진다. 시간과의 전쟁이란 관점에서 볼 때 후세인이 붕괴되지 않고 4월 중순까지 간다는 사실이 미국을 다급하게 하고 후세인에게는 1차적 전략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을 하게 할 소지가 있다.

» 그러면 연합군이 바그다드 시가전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영선 바그다드 외곽선에서 연합군에 저항하고 있는 공화국 수비대는 연합군에게 밀리는 듯 하면서 연합군을 바그다드 시가지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만약 연합군이 이 작전에 휘말리면 승전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김재두 바그다드 시가전을 벌인다는 것은 후세인이 원하는 전쟁 양상으로 미국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군인과 이라크 시민을 분리하고자 했던 심리전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시가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민간인들에게 일정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바그다드에서 빠져 나가라고 선포한 뒤 차후의 결과에는 미국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증원전력이 도착한 다음 목표에 제한없이 작전을 수행한다면 군사적 압승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심각한 외교적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바그다드를 외곽에서 포위하고 기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다음 군정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후세인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방식도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장기전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대안은 바그다드 공격을 시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강구할 수 있는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심경옥 연합군이 개전 초기에 전세를 장악하였다면, 이라크의 시아파를 비롯한 반후세인 세력이 입장을 취하기에 한층 더 용이했다. 그런 점에서 연합군측은 이미 실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후세인은 현재 다양한 부족세력을 이용해서 대항하고 있다. 사실은 3월 마지막 주가 고비였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공화국 수비대는 연합군에게 밀리는 듯 하면서 연합군을 바그다드 시가지 안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다. 만약 연합군이 이 작전에 휘말리면 승전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첫째는 민간인들에게 일정 시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바그다드에서 빠져 나가라고 선포한 뒤 증원전력이 도착한 다음 목표에 제한없이 작전을 수행한다면 군사적 압승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바그다드를 외곽에서 포위하고 기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다음 군정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후세인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는 방식도 있다.

군사적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미·영 양국의 승리로 종전될 것이다.

송영선 현재 이동중인 제4사단의 나머지 병력과 장비가 바그다드 전장에 투입될 4월 10일 이후가 전쟁의 피크가 될 것이다.

노장갑 바그다드는 뉴욕의 1.5배이고 서울보다 크다. 이라크 측의 11~12만 병력이 외곽을 방어한다면, 시가지의 중심 공간은 비어 있지 않겠는가?

바그다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히 둘러싸는 선 포위는 힘들고, 주요 보급로나 거점을 차단하는 거점 포위가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김재두 시 외곽 10~15km까지 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시내에는 특별공화국수비대 2만5천명, 특별보안대 5천명 이상이 시민들과 혼재되어 있다. 바트당원들도 민간인들이 유리되지 않도록 선무공작을 벌일 것이다. 바그다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완전히 둘러싸는 선 포위는 힘들고, 주요 보급로나 거점을 차단하는 거점 포위가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메디나 사단을 포함, 몇 개 사단을 기동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사작전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미군 측의 정·군 지휘부 내에서 파병 규모와 작전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토미 프랭크스 사령관은 정석대로 하자는 주장이 강했다. 즉, 대규모 병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럼스펠드 장관과 같은 민간인 매파들은 신무기와 우세한 항공력을 이용한 단기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김재두 이번 작전을 시작하기 이전에 군부 지휘관의 견해가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토미 프랭크스 사령관은 정석대로 하자는 주장이 강했다. 즉, 대규모 병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럼스펠드 장관과 같은 민간인 매파들은 신무기와 우세한 항공력을 이용한 단기전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이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 외교전에 너무 시간을 소모하고, 그 결과는 현장 지휘관들이 군사력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제약요인만 준 셈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군의 전력구조로 볼 때 시가전에서는 장점 발휘가 힘들다. 반대로 이라크전은 오랜 전쟁으로

숙달된 시가전 경험이 있다. 바그다드 함락작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미국은 고강도의 폭격을 한 뒤에야 들어갈 것이다. 이라크 민간인들의 피해보다 미군 전사자의 급증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 판단한다.

허성필 시간이 흐르면서 아랍권 국가들이 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고, 이라크의 일반 민간인들이 후세인을 중심으로 한층 더 단결하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살테러가 몇 건만 연이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바그다드를 집중 폭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도 명분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살공격 횟수가 늘어날 경우, 미국으로선 용단폭격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심경욱 실제로 3월 31일의 자살공격을 기점으로 미국의 여론이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우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허성필 바그다드가 일단 봉쇄된 상태로 접어들면 시내에 머물고 있는 이라크인들의 긴장감과 공포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할 것이다. 일부 과격한 성향의 이라크인들은 후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탄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

» 전쟁 초기부터 연합군 측에서 발사한 크루즈미사일의 오작동, 미·영군 간의 충돌사고 등이 예상보다 많아 연합군의 사기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성필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을 짚어볼 수 있다. 아무리 첨단무기이지만 모래폭풍이나 먼지가 일으키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의한 오작동이 그 하나이며, 둘째는 심리적 요인에 근거한다. 功者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전장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미·영 양국 전력의 사전 연합훈련 부족으로 인한 상호운용성상의 문제라고 본다.

송영선 게다가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다섯 차례나 전쟁을 경험

자살테러가 몇 건만 연이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바그다드를 집중 폭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살공격 횟수가 늘어날 경우, 미국으로선 용단폭격할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래폭풍이나 먼지가 일으키는 물리적 환경요인에 의한 오작동이 그 하나이며, 둘째는 심리적 요인에 근거한다. 세 번째는 미·영 양국 전력의 사전 연합훈련 부족으로 인한 상호운용성상의 문제라고 본다.

했다. 반면, 영국군은 실전 경험이 거의 없지 않은가.

심경욱 미·영 양국군 간의 엄청난 전력상의 차이에서 오는 상호운용성의 결여도 지적되어야 한다.

김재두 상호운용성도 문제가 될지 모르나 이번 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피해가 부각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 미국이 가지고 있는 Zero Casualty의 전통, 즉 피해자가 거의 없는 과학기술전쟁에 너무 심취해온 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노장갑 내가 불 때 토네이도가 격추된 것은 미군의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의 IFF 피아식별 체계가 미식별상태에서 오작동한 것이다. 이 정도의 오작동 사례를 갖고 미·영 연합군간의 기술적인 혹은 전술적인 결함으로 간주해선 안된다. 이런 오류는 미군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군종이나 병과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현실적인 전쟁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더러운 전쟁(dirty war)”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텐데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은가? 개전 후 60일 정도?

이라크측에게는 시간끌기가 최고의 무기이다. 이에 반해 연합군측에게는 시간끌기가 부담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패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송영선 아니다. 이라크측에게는 시간끌기가 최고의 무기이다. 이에 반해 연합군측에게는 시간끌기가 부담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패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허성필 옳은 말이다. 시간이 적이다.

» 이번 전쟁은 20세기 군대와 21세기 최첨단 군대가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상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이와 유사한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어떤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허성필 전쟁은 정석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중 공격을 충분히 함으로써 적의 의지를 분쇄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지상군 전투로 들어가야 한다. 이번처럼 전면전을 조기에 개시할 경우 미·영 연합군 측의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

었다.

노장갑 토마호크 미사일이 1600km 사정거리를 날아가려면 두 시간이나 걸린다. 폭약도 2,000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 부시가 개전 명령을 내릴 때 모든 폭격 목표가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대상인 후세인과 그 측근은 그 목표점을 피해 민간인 아파트 지하로 피신하였다. 그 결과 후세인은 물론, 그 측근이 모두 살아남았다. 바그다드 시민들이 현재 후세인의 감시체계하에 있으므로 탈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시민들의 이탈이 시작되어 300만명 정도 이탈할 경우, 미군 측에서는 폭격이 용이해질 것이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이 전쟁은 미국이 예상해온 이상의 “더러운 전쟁” 양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성필 미국은 지나치게 낙관적 시각에서 전쟁을 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송영선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후세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고려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 이라크와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전력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자신감이 세계 여론에 비추지면서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으며, 단기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1~3개월이 아니라 단지 1~2주 이내에 끝내는 전쟁이라는 미디어의 최면에 전 세계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 전쟁을 1주일 내에 끝내는 것을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하지 않았다.

허성필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전력에 지나치게 과신한 것이 사실 아닌가? 이라크 파병의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이라크 내부의 저항 정도에 대해서는 오만한 게 아닌가?

노장갑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부시가 Go! 했을 때 단기전일 것임을 확신했다고 보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전 이전의 외교전에 지나치게 시간을 소모했다. 그러다가 4월을 맞이하면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쫓겼던 것 같다. 비록 “더러운 전쟁” 대안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여러 작전계획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바그다드 시민들이 현재 후세인의 감시체계하에 있으므로 탈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시민들의 이탈이 시작되어 300만명 정도 이탈할 경우, 미군 측에서는 폭격이 용이해질 것이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이 전쟁은 미국이 예상해온 이상의 “더러운 전쟁” 양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는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

» 미·영 연합군은 전쟁을 빨리 마무리짓고 싶을 텐데요. 세계적 반전 움직임이 갈수록 격화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반전 움직임이 향후 전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허성필 미국은 전쟁이 끝난 다음 이라크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송영선 전쟁 이전의 반전 여론은 미국에게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후세인 제거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반전 여론 때문에 후세인 제거라는 원래 목표를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로 1993년의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전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반전 여론 때문에 후세인 제거라는 원래 목표를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로 1993년의 소말리아의 모가디슈전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심경옥 이번 전쟁이 단순히 석유전쟁이라는 반전 세력의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복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전쟁상황의 종료와 함께 이라크 영내의 석유 생산과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송영선 전적으로 동감한다.

김재두 그러나 미국은 흔히 세간에서 쓰고 있는 소설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석유 부문을, 영국은 건설 부문을 전후에 분배, 관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설 부문도 미국기업이 일차 계약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석유나 건설 부문을 모두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라크의 석유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해 전후 복구 비용을 충당하자는 안이 오히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쪽에서 먼저 나오는 형편이다.

송영선 미국의 독식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관

계는 이익에 의해 움직이지, 결코 명분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적자생존의 현장이다.

노장갑 그렇다. 인도주의건 민주주의건 명분은 좋다. 그러나 미소 양국이 대립해 있던 지난 냉전체제 하에서는 중간의 회색지대에 속한 국가들을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기 위해 명분 쌓기가 절실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은 명분이 다소 없다고 해서 어떤 손실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일단 전쟁이 종료되면, 참전 몫과 기여도에 따라 엄중한 파이 가르기 한판이 벌어질 것이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참여 기회는 사전에 차단될 것이다.

»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량살상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었다는 보도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장갑 그렇지 않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쓴다면 자멸을 자초할 것이다. 이라크로서는 세계 각지에서 불붙고 있는 반전·반미 여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아군이자 미군의 한손 한발을 묶어놓고 있는 지원군이다. 그런데, 화학무기를 쓰는 순간, 세계 여론도 등을 돌릴 수 있고, 미국의 무차별 폭격과 진격에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경옥 후세인 정권이 생존의 갈림길에 서는 시점에 이르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맞서있는 시점에서는 이라크가 그 같은 모험을 할 가능성이 적지만, 미군의 과감한 군사작전으로 후세인 정권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화학무기를 쓴다든가 하는 최후의 모험에 모든 것을 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영선 그렇다. 전쟁의 흐름을 호도할 가능성이 엿보일 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 하에서 미국은 명분이 다소 없다고 해서 어떤 손실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일단 전쟁이 종료되면, 참전 몫과 기여도에 따라 엄중한 파이 가르기 한판이 벌어질 것이다.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참여 기회는 사전에 차단될 것이다.

화학무기를 쓰는 순간, 세계 여론도 등을 돌릴 수 있고, 미국의 무차별 폭격과 진격에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미국은 종전 후 이라크에서 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군정이 들어설 경우, “UN 무용론”이 다시 대두될 텐데요. 또한 전쟁 반대국가들이 군정 반대라는 이슈를 내세움으로써 유사한 갈등관계가 재현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도
꺾대기뿐인
UN이지만,
다른 대안이
나설 때까지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 그 대안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송영선 우선 “UN 무용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이 대체 기구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한 UN을 무용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UN을 무용지물화하는 것을 UN 상임이사국이 절대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상당하다. 미국도 꺾대기뿐인 UN이지만 다른 대안이 나설 때까지는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 그 대안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재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심경옥 미국은 군정이 아니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노장갑 그렇다. 미국은 유엔의 통치를 명분으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 나라들의 전후 처리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재두 UN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국제공조를 다지는 장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많다. 각 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아직은 UN의 기능에 의존하느니만큼 “UN 무용론”은 특정 사안의 경우를 강조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 좌담 진행 및 정리 심경옥

本誌에 실린 內容은 執筆者的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처/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황동준 배포문의/961-1888 홈페이지/www.kida.re.kr 정가/800원